

'Peace for Ukraine' 공공미술 프로젝트

전주지역 작가들 구성 아트그룹 KHK, 오거리 문화광장 공공미술작품전

전주 지역작가들로 구성된 아트그룹 KHK가 지난 24일 거대 공공미술 작품과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좋은 우리의 몸을 아프게 할 수 있지만 문화는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우크라이나와의 연대를 표하고 국가 간의 평화를 추구하고자 한다. 평화 기원의 뜻을 가진 'Peace for Ukraine' 캠페인에서 확장해 '오거리 문화광장'에서 행해지는 공공미술로 시민의 문화공간에서 소통하는 '지역단위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아트그룹KHK는 객사와 전주영화거리 동선을 연결하는 오거리 문화광장에 '평화의 총(Peace Gun)' 작품 설치를 통해 지역 일대를 연결하는 예술 공간으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시점부터 추진 중인 '평화의 총(Peace Gun)' 작품은 전쟁을 직관적으로 나타내는 총 조형물에 우크라이나 국기를 상징하는 파란색과 노란색을 담은 조형작품으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보내는 위로와 함께 세계 평화 염원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Peace Gun'은 평화 기원의 뜻을 가진 'Peace for Ukraine' 캠페인 상징물로서 제작된 공공미술 작품으로 외지에서 전주에 오는 사람을 맞이하는 접점인 객사의 큰 오거리 광장위에 퍼포먼스와 행위예술을 포함한 공공미술 프로젝트다.

아티스트 3명으로 짜여진 그룹 KHK는 다음달에는 아외조각, 미디어아트, 퍼포먼스,



전주 지역작가들로 구성된 아트그룹 KHK가 오거리 문화광장에 '평화의 총(Peace Gun)' 작품 설치를 통해 지역 일대를 연결하는 예술 공간으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행위예술이 결합된 새로운 공공미술 명소를 완성할 예정으로 각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룹 KHK는 본격적인 프로젝트 제작을 시작해 시민들의 참여프로그램을 조성하고 이달까지 전체 작품설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미술 작품 중 하나인 '피스 건'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참여형 작품이다. 시민들이 바라는 소망과 평화의 메시지를 적어 우크라이나 평화 캠페인 참여에 동참 함으로

서 예술작가와 시민들이 같이 만든 '세계평화'로서의 작품을 완성해 전시할 예정이다. '평화의 총' 시민참여 프로그램은 4월부터 한달 간 진행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엄혁용 전북대 예술대학장은 "미디어와 다양한 예술장르가 결합된 새로운 공공미술이 오거리문화 광장에 설치됨으로써 지역의 문화예술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과 함께하는 공공미술 작품을 완성도 있게 선보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전문선 기자

'대향 이중섭 레플리카展' 군산서 개최

군산예술의전당, 4월 1일~5월 10일까지 50여점 작품 전시

군산예술의전당은 오는 4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2, 3 전시실에서 꺼지지 않는 예술혼 대향 이중섭 레플리카展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 격동의 세월을 거치며 사랑하는 가족과 생이별하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물론, 작가 개인의 경제적 빈곤과 창작의 극한 고통 속에 삶을 마감한 근현대미술의 거목 이중섭의 레플리카 작품으로 진행된다.

이중섭 작가의 삶의 궤적을 따라 「내면의 표출」, 「가족에 대한 그리움」, 「잠시 머무른 흔적」 등 6가지 주제로 구역을 나눠 총 50여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소」의 작가로만 알려져 있는 이중섭 작가의 아내와 아들을 향한 따뜻한 가족사랑을 새롭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작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도슨트(전문안내인)의 설명을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평일, 주말 총 하루 4회씩 운영해 관람객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며 스마트폰을 통한 작품설명 청취가 가능한 오디오 가이드가 준비돼 관람객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김덕일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은 "이중섭의 대표작 '황소'를 비롯, 가족과의 행복한 나날, 가



족과 헤어져 홀로 지난 피란시절의 모습을 다양하게 관람하며 인간 이중섭의 다른 모습을 만나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철저한 방역수칙 아래 진행되는 이번 체험전시는 코로나19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 힐링을 제공코자 무료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산=남현봉 기자



고창문화관광재단,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유공 표창

유정선 주임 · 송은진 사원

(재)고창문화관광재단의 유정선 주임과 송은진 사원이 지난 24일 열린 2022년도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상'과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회장상'을 수상했다.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에서는 지난해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한 문화재단 종사자 중 엄격한 심사를 거쳐 탁월한 유공 공적자를 선발했다.

경영지원팀 유정선 주임은 3건의 국가공모사업과 전북권 문화재단 협력사업을 수행했다. 또 고창의 자원을 활용한 문화 콘텐츠 개발 등

지역의 특성과 문화적 니즈를 반영한 사업 발굴에 앞장서 주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고창군 대외 홍보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크다.

문화살려팀 송은진 사원은 전문 문화기획자 양성과정, 지역문화 생태계 구축 통합운영,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 등 주민의 문화 역량 강화와 지역 내 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했다. 특히 전문 문화기획자 양성과정의 경우 올해 4기 운영을 앞두고 있어 고창 문화인력 발굴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창문화관광재단은 "올 한해도 문화예술·관광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으로 주민 삶의 질적 향상을 돕는 문화적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디지털혁신 부처 신설 필요하지만 미디어·콘텐츠 제외해야"

김민호 교수, 디지털규제혁신포럼서 주장

차기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일명 '디지털미디어혁신부'에서 미디어와 콘텐츠는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4일 디지털규제혁신포럼 주제로 열린 '디지털플랫폼 혁신 생태계를 위한 정책 제안'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디지털 기술 기반의 새로운 혁신적 산업의 발굴과 진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다"며 "부처 간 중복 규제가 발생하고 규제를 받는 사람들이 곤란을 겪고 있으니 이를 통합하는 하나의 부처 신설이 필요하다"고 디지털 전담부처 신설에는

동의했다.

하지만 미디어·콘텐츠의 경우 디지털과 성격이 달라 한 부처에 뒤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그는 "미디어는 공공성을 갖고 있어 정부당국의 적극적 규제가 필요하지만, ICT는 진흥과 지원을 우선해야 하는 소극적 규제를 해야 하는 영역"이라며 "ICT와 미디어가 같이 있으면 더 높은 수준의 규제에 맞출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디지털혁신 전담부처 신설은 아주 바람직하지만 여기에 미디어, 콘텐츠를 엮으려고 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디지털혁신부에서는 새로운 디지털혁신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 진흥과 규제 사무를 총괄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문체부의 경우 미디어정책국에서 미디어

어, 콘텐츠정책국에서 콘텐츠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미디어정책국은 미디어정책과를 포함해 방송영상광고과, 출판인쇄독서진흥과 등으로 구성돼 있다.

콘텐츠정책국은 문화산업정책과와 영상콘텐츠산업과, 게임콘텐츠산업과, 대중문화산업과, 한류지원협력과 등으로 구성돼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미디어, 콘텐츠를 디지털, ICT와 같이 놓는다는 건 문화적 측면을 배제한 것"이라며 "쉽게 말하자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로 볼 수 있는데 내용적인 면의 중요성을 간과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초 25일로 예정됐던 문체부의 인수위 보고는 인수위 측이 자료 보안을 요구하면서 28일 오후 4시로 연기됐다. /뉴시스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